

전 남

‘문전성시’ 장흥 목공예 경매

편백가구·서각 등 4월부터 9차례 행사 인기

남도 장인의 숨결이 살아있는 목공예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남도의 ‘목공예품 토요일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경매는 전남도가 특색있고, 생활에 유용한 목공예품을 지역 대표 기념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18일 “장흥 전남목공예센터에서 지난 9일까지 총 9차례 목공예품 토요일경매 행사를 열어 그동안 총 74점 중 42점이 낙찰돼 57%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미술 경매시장을 감안할 때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토요일경매에서는 출품작 8점 모두가 낙찰되는 등 목공예품 애호가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목공예품 토요일경매 행사는 편백가구·서각·생활소품 등 다양한 목공예품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작하며, 경매물품은 장흥군 우드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1주일 전에 홍보한다.

경매는 정상 판매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해 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



경쟁자 없이 1인 응찰인 경우 소수 구매자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쿼츠를 통한 경품행사도 실시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전남도는 오는 7월 말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기간 동안 목공예품 특별 경매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품작을 엄선해 경매물품을 2배로 늘려, 목공예품 토요일경매행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송경일 경제통상과장은 “전남목공예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목공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남이 전국 목공예 중심지가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2월 개관한 전남목공예센터는 목공예품 생산 공방, 기획전시실, 교육 및 체험장,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다양한 목공예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개관 후 지금까지 관광객 41만명이 방문하고 전시판매장을 통해 8억8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남도의 대표 공예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위기의 농촌경제’ 농지은행으로 넘자

노후 걱정 끝...작년 가입자 77% ‘만족’

③ 농지연금 사업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0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가인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1.8%에 달했다. 이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1.3%와 비교해 2.8배나 높은 수치다.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를 지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전체인구의 고령화율이 최근 5년 사이 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농가는 2.7%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농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촌의 고령화율은 1995년 16.2%에서 2000년 21.7%로 높아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뒤 2005년 29.1%, 2010년 31.8%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고령농가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고령농가 가구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70세 이상) 농가가 80.9%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 ‘초고령화 시대’ 농촌의 사회 안전망 확충=농촌은 국민연금·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



농지를 담보로 잡고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2억 담보시 65세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매월 생활자금 지급...부부가 종신까지 수령

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인 ‘농지연금’을 도입,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인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주인 남편이 사망해도 부인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 담보농지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

점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정 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금이 더 많다. 2억원(공시지가 기준)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 가입만족도 높아=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가입자 961명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만족도는 77.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추천 의향 역시 긍정적(73.2%)으로 조사됐다.

가입동기는 ‘경제적 이유’(42.9%)와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30.2%)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입당시 지급금 크기(38.5%)를 가장 많이 고려했으며, ▲농지채분(26.5%) ▲자녀상속(22.5%) ▲채무상환(17.9%) 등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전 주로 배우자(43.9%) 또는 아들·며느리(38.1%)와 상의를 했으며, 아들의 반대비율(49.1%)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용 전남지역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흑두루미가 사연을 배달합니다

순천만 우체통 인기...엽서 2300매 발송

순천만에 설치된 흑두루미 우체통(사진)이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들로 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용산 전망대 2층에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마스코트인 꾸루·꾸미 우체통을 설치한 이후 500여 통의 느낌보 엽서를 포함해 2300여매의 엽서를 발송했다.

시는 관광객들이 순천만의 사계를 담은 순천만 엽서에 사연을 적어 넣으면 매일 전국으로 발송하고 있다.

꾸미 우체통에 넣은 사연은 회수한 다음날, 꾸루(느림보)는 본인이 원하는 특정 기념일에 맞춰 발송한다.

무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순천만 엽서(3종 1000종)는 회수율이 73%를 웃돌아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흑두루미 우체통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름다운 사연을 배달하는 우체통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바라며 순천만을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5월까지 91명 참여...2년 연속 목표 초과

‘농지연금’ 첫 도입한 2011년 총 가입자는 1007명으로 당초 목표(500호)보다 2배나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사업비도 당초 15억원보다 4.7배 많은 72억원이 집행됐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 1인당 월

평균 연금 지급액은 97만원, 연금 지급방식별로는 종신형 37.7%·기간형 62.3%로 나타났다.

평생보장의 장점이 있는 종신형보다 기간형의 선택이 많은 이유는 기간형 선택시 월 지급금이 높게 책

정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생활비 마련과 장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가입자가 당초 계획(63명)보다 2배 가까이 109명(1인당 평균 월 51만6000

원 지급)으로 늘었다. 사업비도 1억 9200만원에서 4억9200만원으로 대폭 늘어 집행됐다.

전남지역분부는 올해 농지연금 사업비를 전년보다 7배 늘린 14억원을 확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월말 현재 91명의 고령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금형, 기계, 자동화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5회 광주국제금형기계 및 공장자동화기기전

6.20 수 ▶ 23 토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품목 Exhibits Profile

○ 금형 및 소재 분야

- 금형가공/성형기기
- 금형/부품/소재
- CAD/CAM 및 소프트웨어
- 계속/검사기기

○ 기계 분야

- 금속공작/가공기계
- 일반산업기계 및 설비
- 공구/용접
- 기타관련기기

○ 공장자동화분야

- FA기기 및 공정제어시스템
- 유공압 및 제어계측기기
- 물류시스템 및 포장기기
- 부품 및 소재분야

부대행사 Event

○ 전국금형CEO경영혁신연수회

○ 해외 금형바이어 수출&구매상담회

GIMMA 2012 사무국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T. 062-611-3400 F. 02-588-2599 E. hipark@kimikorea.com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T. 062-945-2216 F. 062-945-2218 E. moldmecca@korea.com

무도입장권
*본 권은 입장권(3,000원)을
대신합니다.

